

# 스님과 감독, 앙코르 문명 모태 지킨다

캄보디아 앙코르 문명의 모태로 알려진 아렝(Areng) 계곡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 감독과 캄보디아 스님들이 만났다.

〈뉴욕타임즈〉지는 “아렝 계곡을 보존하려는 캄보디아 불교계의 젊은 스님들과 그들의 노력을 영상으로 엮어 다큐멘타리를 제작한 캄보디아계 미국인 켈야니 만(Kalyanee Mam) 감독이 수몰 위기에 처한 아렝 계곡의 안타까운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스님과 감독의 노력으로 세계는 이제 찬란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품은 카르다움 산맥의 아렝 계곡이 수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아렝 계곡의 수몰 위기는 캄보디아 정부가 아렝 계곡 일대에서 17개의 수력 발전 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아렝 계곡 일대에 댐이 건설되면 약 26,000에이커가 수몰될 것”이라고 운운한 총치엠(Chong cheam) 스님은 “댐 건설로 이곳에서 터를 닦고 있던 1,500여 명의 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못 생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스님들이 프놈펜에서 이곳 아렝 계곡까지 150마일 이상을 도보로 걸은 것은 이 위기를 피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찬란한 불교 유산이 태동했던 곳, 수많은 희귀종이 살아가는 곳에 수몰 위기



총치엠(Chong cheam) 스님 등이 아렝계곡 보존을 위해 150마일 도보 순례를 하고 있다.



아렝 계곡의 전경.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계곡과 호수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 캄보디아 아렝 계곡, 댐 건설로 수몰 위기 스님들 도보 순례...켈야니만 감독 다큐멘터리 제작

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캄보디아계 미국인으로서 할 일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말한 켈야니 만 감독은 “캄보디아 불교계의 젊은 스님들이 이곳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담으면 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불교계 젊은 스님들의 신심과 캄보디아계 미국인 켈야니 만 감독의 예심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

아렝 계곡을 찾아나선 스님들의 150마

일 여정을 담은 켈야니 만 감독의 다큐멘터리 “A River Changes Course”는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즉, 스님과 감독의 만남이 캄보디아 아렝 계곡에 대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초가 된 셈이다.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닌 ‘진정한 행복’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한 〈뉴욕타임즈〉지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내 수요를 만족시킬 에너지를 바라며 17 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다.”며 “켈야니 만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댐 건설이 캄보디아 정부에게 경제적 이득을 약속할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한 비용 역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카르다움 산맥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야생 지역”이라는 데 주목한 〈뉴욕타임즈〉지는 “태초의 신비로움과 그대로의 거친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는 현존하는 포유류 중 가장 신비한 동물 쿠프레, 보넷 긴팔 원숭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희귀 동물의 마지막 안식처”라며 “이들과 함께 무려 31종의 개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댐의 위험을 경고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美 대학 캠퍼스에 불교사원 들어선다

## 부탄불교계, UTFP에 전통사원 실물 모형 건축해 실제 규모와 기능 재현 ... 2008년 스미스소니언 민속축제 때 세워

미국의 한 대학 캠퍼스에 사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터넷 저널 〈Borderzine〉은 18일 “텍사스 엘파소 대학 UTFP(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캠퍼스에 부탄불교 전통사원이 세워지고 있다”며 “구미 대륙을 통틀어 대학 내 첫 불교사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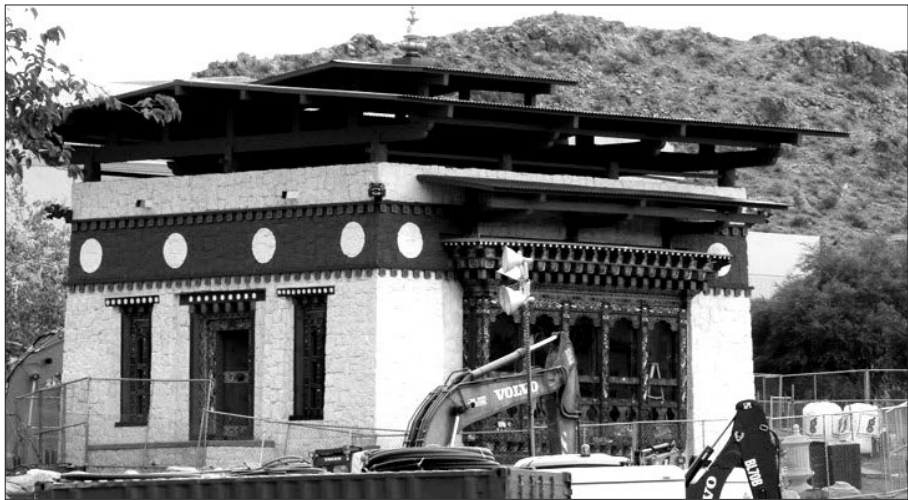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UTFP 캠퍼스에 세워지고 있는 부탄불교 전통사원은 지난 2008년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박물관 주최 민속축제 현장에서 선보인 실물 크기의 사원 모형으로, 올해 초 부탄불교계의 ‘사원 모형 건축물 기증 의사’를 UTFP 측이 수락해, 옮겨질 수 있었다.

“비록 민속축제에 전시된 ‘사원 모형 건축물’이지만, 실제 법회를 봉행해도 될 만큼 사원의 실제 규모와 기능 등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설명한 로쌍 썸텐(Losang Samten) 스님은 “UTFP 재학생들이 새로운 종교문화를 접하는 데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로쌍 썸텐 스님은 사원 모형 건축물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UTFP 캠퍼스로 옮기는 일을 총괄하고 있다.

“대학 당국이나 재학생 모두 ‘의미 있는 건축물’이라는 데 동의해, 부탄불교 전통사원의 모형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한 헬렌 입(Helen Yip·종교학) 박사는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UTEP는 ‘물질보다는 정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록 모형 건축물이지만, ‘새로운 정신세계를 엿보자’는 대학 당국과 학생의 뜻이 있어 부탄불교 전통사찰을 캠퍼스에 세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UTFP 캠퍼스에 세워지고 있는 부탄불교 전통사찰 모형 건축물. 2008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민속 축제’ 현장에서 설치된 것으로, 부탄불교계가 UTFP 측에 기증했다.

“부탄불교 전통사찰 모형 건축물은 오는 9월 말 내부 장엄을 마치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Borderzine〉은 로쌍 썸텐(Losang Samten) 스님의 말을 인용, “만다라 시연 등 부탄불교 관련 문화·예술 공연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 당국이

일련의 공연을 진행하며 개교 100주년의 의미도 더하는 한편, 9월중 개원될 ‘부탄불교 전통사찰 모형 건축물’에 대한 지역 사회에 대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중 판롱사, 관광객 산문 출입 금지

위난성 지방정부의 ‘사찰 공공 서비스 강화’에 반발



위난(Yunnan)성 판롱(Panlong)사 일주문과 ‘관광객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판롱사는 지난 8월 15일 위난성 지방 정부의 ‘사찰 공공 서비스 강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관광객의 산문 출입을 막아냈다.

중국 위난성 3대 사찰 중의 한 곳인 판롱(Panlong)사가 지난 8월 15일부터 관광객의 산문 출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EPOCH TIMES〉에 따르면, 위난성 지방 정부가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찰의 공공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행정 지침을 내놓자, 그에 대한 반발로 판롱사가 ‘산문 출입’이라는 강경책으로 맞선 것이다.

위난성 지방정부가 판롱사 등에 제한한 ‘공공 서비스’란 위난성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사찰 소유의 차량이나 숙소 등을 무료 제공하지는 것으로, 위난성 일대의 ‘유명 사찰 관광 벨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 정부 관광청에서 주도하고 있다. “위난성의 고찰 대부분 차마고도 인근의 수려한 경관의 입지에 있어, 매년 막대한 관광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제된 위난성 관광청은 “이번 ‘사찰 상용화’는 ‘관광 수익에 대한 사회적 분배’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판롱사 등 위난성의 사찰 대부분 “수행 환경을 간파한 채 관광 수입에만 매달린 우둔한 정책”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세속을 등진 스님들이 어떻게 ‘상용화’라는 굴레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판롱사가 지난 15일 산문에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 관광객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관광객 추임을 통제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에 대해 〈EPOCH TIMES〉는 “위난성 성유 사찰이 지방 정부의 정책을 끝까지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1347년 개원한 판롱사 경우, 빼어난 입지 조건에 힘입어 위난성 방문 관광객의 40%가 매년 사찰을 방문하고 있어, 지방 정부는 물론 지역 주민조차 ‘관광 수익의 사회적 분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POCH TIMES〉는 “중국에서 종교는 결코 정부 위에 설 수 없다”는 시아 시아오치양(Xia Xiaoqiang) 위난성 공산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고, “문화 혁명 당시 ‘사찰 파괴’에 앞장선 정부가 이제는 ‘사찰 경제권’을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판롱사의 반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버마, 캐나다 관광객 추방

다리의 ‘석가모니 문신’ 문제 삼아

한 캐나다 관광객이 버마에서 강제 추방됐다. 다리에 새긴 ‘석가모니 문신’ 때문이다.

〈World〉지는 “버마 관광길에 나섰던 제이슨 폴리(Jason Polley·Hong Kong Baptist University) 교수가 강제 추방됐다”며 “그의 다리의 석가모니 문신이 SNS에 노출되면서, 버마 당국이 출국 조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버마 당국은 “전체 인구의 90%가 불교도인 버마에서 하체 부분은 ‘부정한 신체 부위’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인 자신의 다리에 석가모니 문신을 한 것은 자칫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강제 추방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제이슨 폴리 교수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새긴 ‘석가모니 문신’. 그는 최근 이 문신으로 버마에서 강제 추방됐다.

폴리 교수는 〈World〉지와 인터뷰에서 “불교가 버마 사회의 ‘기둥’이라는 뜻에서 다리에 문신을 하였다”며 “이런의 정서를 그 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못내 아쉽다”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곱광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죽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완저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 ▶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물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